다산포럼

김 민 환

MB스러운 것들

여고생들이 많이 나온 초기의 촛불시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이 '2MB'라는 종이피켓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인 MB에 '이'씨와 음이 같은 '2'를 덧붙인 것이지만 시위꾼들이 말하고자 한 바는 그 이상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가 바이트시대에 고작 2메가 바이트 정책이나 내놓는 구닥다리 정권'이라는 뜻을 함축한다고 한다. 인터넷 세대의 앙증스럽기 짝이 없는 구호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이 왜 메가 바이트 차원이라고 단정한 걸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빨리 체결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쇠고기쯤이야 선뜻 양보해도 괜찮다는 산술적 계산법에 얽매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것이 구시대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도 부정적인 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고생들은 아마 쇠고기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메가 바이트스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IT니 BT니 하는 것이 21세기에 국운을 가를 것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그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대운하사업 공약은 하나의 시대착오로 느껴졌을 게 뻔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고작 토목공사나 벌이겠다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비켜갔을 리 없다.

이명박 정부가 기가 바이트시대에 메가 바이트 차원이라면 이건 분명 예삿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제자리걸음이나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국면이다. 이러한 때 정부가 시대착오적이라면 큰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대차 없이 모두 메가 바이트스럽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십만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온 상황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던 여야 정치인들이야말로 메가 바이트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마친지 오래인데 아직 국회를 열지도 않고 열 생각도 하지 않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당이야 정부 체면 살피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양이지만, 눈에 띄는 정책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시위대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야당을 보며 우리는 슬픔이 아닌 절망을 느낀다.

촛불을 든 시민을 친북 좌경으로 몰아세운 주류 언론도 기가 바이트시대에 메가 바이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검증했다. 여전히 악대 차(band wagon)를 뒤따르며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도 우리에게 낙담을 안긴다. 촛불시위를 비판한 신문에 광고를 준 광고주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일부 시민도, 그런 행위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검찰당국도 메가 바이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판이 벌어지자 이 기회를 정권타도 국면으로까지 발전시키려는 일부 운동권이나, 그들에 맞서 군복을 입고 나와 빨갱이 타도를 외치는 꼴통보수들은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들이 외치는 맞고함을 들으며 동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건 참으로 역겨운 일이다.

정년을 맞아 강단을 떠나는 이 시대의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가운데 대의제 이상으로 효과적인 것도 없다. 정당이나 언론이 제 구실을 해야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번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여러 사회 구성요소가 대의제의 정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자문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메가 바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백 희 정

누가 피해자인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특징은 운동하는 개개인이 행복해야 여성운동도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이 행복한 방식의 운동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들은 삶의 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남성의 폭력을 공적인 이슈로 만들어 내게 된다.

과거에는 성폭력이 가해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이나 '정상적'이 아닌 개인의 병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성관계의 문제로 간주되는 등 국가가 간섭하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성희롱, 성추행 등을 한번쯤 당해보지 않은 여성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급기야 성폭력 추방운동이 여성운동의 이슈로 자리 잡게 되고, 지난 1993년 일명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성관계의 문제가 아닌 권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 관념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가해남성을 자극하거나 유인하는 행동을 하며 은근히 즐긴다는 그릇된 관념은 철저히 비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한계는 여전히 나타난다. 우선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 동의적인 성폭력 중에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만을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혹은 인격권의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조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가해자보다는 '누가 피해자인가'가 더 궁금해지게 만들어 내는 사회적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친고죄 조항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법적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작은' 입법기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치 피해자가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성특법의 한계를 이용하고 있는 듯 자신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서두르지 않고 있다. 혹시 남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 왜 나만? 왜 내가 희생이 되어야 하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질것이라는 생각에서라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관계'가 아니라 감추면 감출수록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주도면밀하게 나타날 엄연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이 '성폭력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찰칵! 동물세상

캥거루, 고개를 내밀다

아침 일찍 캥거루 사육사가 달려왔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캥거루 새끼가 드디어 주머니 밖으로 나왔으니 얼른 가서 보라는 것이다. 이 사육사도 필자가 새로운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걸 익히 아는 터라 그런 소식을 일부러 뛰어와서 필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런 분들 덕에 이 글이 만들어진다.

만사를 접어두고 부리나케 카메라를 들고 전동차를 몰고 캥거루사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5분 사이 이미 캥거루 새끼는 어미의 주머니 안에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을 행여 다시 나오려나 기다렸지만 사진처럼 고개만 내밀 뿐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다음에 완벽한 컷을 잡으면 다시 새로 찍기로 하고 이번에는 불완전하지만 주머니 속 캥거루를 보여준 것만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진에서 앞의 녀석이 아버지 '부머'이고 뒤에 있는 엄마는 '블루', 새끼는 '조이'라 지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캥거루 새끼를 부르는 애칭이 바로 조이(Joy)다.

우리 동물원에 캥거루가 들어 온지는 겨우 2년 째다. 보통 3살부터 분만을 할 수 있으니 아주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캥거루 새끼는 임신 후 한 달에 어미 자궁에서 핏덩이 채로 홀로 기어 나와 어미 배를 타고 육아낭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육아낭 속 네 개의 젖꼭지 중 하나를 물고 5개월 동안을 자란 후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그리고 10개월 후에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1개월 된 새끼가 어미의 자궁을 빠져 나와 육아낭으로 가는 그 3분의 긴 여정은 '생명의 경이' 바로 그 자체이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노트북도 휴대폰처럼 충전기 표준화해야

취업난 여파로 대학 도서관은 늘 붐빈다. 특히 중간·기말고사가 겹칠 때면 새벽부터 '자리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며칠전 한 남학생이 노트북을 사용 중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자신이 사용중인 노트북 모델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다녔다.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노트북을 꼭 사용해야 하는 절박함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몇년 전부터 달라진 캠퍼스의 풍경 중 노트북의 보급이 급격히 늘었는데 휴대용 배터리의 사용시간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즉 충전된 배터리는 한글 작업만 했을 경우 2시간~2시간30분 밖에 가질 못한다. 충전기를 챙기지 않았을 경우 편리한 노트북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트북도 휴대폰 충전기처럼 규격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언제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더라도 밧데리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방전시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라도 충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을 것이다.

회사마다 모델마다 각양각색인 노트북 충전기를 하루빨리 휴대폰처럼 표준화시켰으면 한다. 그래야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고 사용자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김해 장애인 전용 목욕탕 호응… 광주·전남도 도입을

경남 김해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김해시의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들었다. 김해시에서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2006년부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봉사활동을 가거나 주변 장애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목욕탕을 무척 꺼린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집에서 씻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다보니 집에 목욕탕 시설도 없는 경우가 많아 씻는 것이 고역이다.

김해시가 장애인들의 이런 형편을 알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작지만 큰 실천이라고 생각된다.

김해시에서는 이 목욕탕에 비누와 수건, 칫솔 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남녀 자원봉사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찾아가 장애인들의 몸도 씻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비스도 좋다보니 농촌지역 장애인들까지 찾아온다고 한다.

광주·전남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산다. 이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등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현안 협의 기대 크다

영호남 지역 시·도지사들이 오는 26일 협력 회의를 갖고 양 지역의 공동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당면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역 간 화합은 물론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제11회 협력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 반(反)지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 지방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가속화해 지방의 자립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반 지방정책 중지를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합의문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양 지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영호남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원사업이 많다.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건설,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지리산권 광역개발, 2012 여수엑스포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현안은 양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인 만큼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영호남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적 이유로 갈등 관계를 지속해왔다. 영호남의 갈등은 양 지역은 물론 국민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는 단지 협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제 구축, 민간교류 확대 등 영호남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방이 서울보다 '물가고'에 시달려서야

최근의 국제유가 및 곡물류 값의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서울보다는 지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생활물가를 조사한 결과다. 지방의 주민들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물가 상승률은 광주가 7.2%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5.6%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에 이어 충북 6.4%, 인천·경남 6.1%, 경기·충남 6.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5.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도 마찬가지다. 장바구니 물가는 제주가 6.2%로 가장 높았고 강원(6.1%), 충북(5.9%), 경북(5.8%), 경남·전남·울산(5.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 4.0%였으나 서울은 3.7%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지방의 경우 유가와 곡물의 가중치가 커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서울은 자가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지방은 자가용을 몰 수밖에 없어 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이다.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높다는 것은 문제다. 지방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현실에서 생활물가마저 치솟으면 지방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지방은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물가 상승폭은 갈수록 가파르다. 이미 당국의 관리 목표를 넘어섰고 하반기 전망은 더 불안하다. 물가 안정 없이 경제는 회복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지방정부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2인자의 등극

자수성가로 떼 돈을 번 대표적인 현존 인물, 세계 최고의 갑부, 마이크로 소프트(MS) 왕국의 창시자이자 컴퓨터 산업의 황제, MS 회장 빌 게이츠를 이르는 표현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게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게이츠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 경영 일선에서 퇴임한다.

그의 영화를 이어갈 후임자는 누구일까. 그의 퇴장이 임박하면서 MS의 차기 최고 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의 CEO인 스티브 발머가 단연 주목을 끌고 있다. 발머는 지난 2000년 CEO 자리에 오르며 '게이츠 없는 2기 MS시대' 경영을 맡기 위한 수업을 해 왔다.

발머는 지난 73년 하버드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게이츠를 만났다. 두뇌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던 두 천재는 동급생으로 공부벌레와는 거리가 먼 대학생활을 했다. 벼락공부로 시험을 보는데도 높은 학점을 따는 자신들의 우수한 머리에 자부심을 느끼며 동질적 유대를 쌓은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발머가 80년 마이크로 소프트의 28번째 직원, 사장 비서로 채용되면서 종속적으로 바뀌었다. 발머는 입사 후 증원을 주장하다 이를 반대하는 사장 게이츠와 충돌했다. 결국 사표까지 내던졌지만 그것뿐, 게이츠 아버지의 주선으로 화해한 이후 그는 단 한 차례도 사장과 맞붙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모나지 않는 2인자의 길을 걸었고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성공신화는 게이츠와 발머의 합작품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심하게 다투고 잘못해도 먼저 사과하지 않는, 독특하다 못해 고약한 게이츠의 성질을 인내로 견뎌낸 덕분에 이제 1인자로 등극한다.

참을성과 주군을 향한 충성,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의 성공철학은 현대를 사는 직장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